

히젠 요시다 도자기 가마모토 회관

히젠 요시다 도자기 가마모토 회관에서는 이 지역을 유명하게 만든 도자기 양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도자기는 16 세기 후반, 규슈 히젠 지방의 전국 시대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였던 류조지 다카노부(1529~1584)가 인근 나루타니 강에서 반짝이는 하얀 돌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일본의 도석 채굴업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전시품과 더불어 가게에서는 현재 도자기 공방 5 곳의 자기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히젠 요시다 도자기의 대명사라고도 불리는 미즈타마 다기를 비롯해 모두 도자기 공방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담긴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에쿠보와 호쿠로

히젠 요시다 도자기는 장인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제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에쿠보’(핀홀)와 ‘호쿠로’(반죽이나 유약에 함유된 철분으로 인한 흑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쿠보와 호쿠로’ 참가 도자기 공방에서는 장인의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제조 공정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규격 외 제품’의 상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각 도자기 공방에서 직접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히젠 요시다 도자기 가마모토 회관은 원래 가마모토(도자기 공방) 조합이라고 불리는 현지 주민들의 집회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역 조합원이 모여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1995 년, 요시다 도자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하이킹 코스)의 출발 지점

히젠 요시다 도자기 가마모토 회관은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인 규슈 올레 우레시노 코스의 출발 지점으로 편리합니다. 건물 외관은 붉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건물 입구 근처에 있는 파란색 이정표는 코스 방향을 알려줍니다. 규슈 올레는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제주 올레’의 자매 길입니다.